

월요논단



김 태 일
제주대학교 건축학부 교수

옛 제주대학교 본관, 옛 제주시청사, 옛 남제주군청사, 옛 추사관, 카사텔아 구아 갤러리. 한국 건축사적 흐름에서 의미를 갖는 건축, 제주사회의 흐름을 읽을 수 있는 건축, 그리고 유명건축가의 유작으로 평가할 수 있는 건축물들이다. 그러나 지금을 우리들의 생활공간에 존재하지 않은 건축물이다. 이중 옛 제주대학교 본관과 카사텔아 구아 갤러리 정도가 철거와 존치를 둘러싸고 논란이 되었을 뿐 슬그머니 철거되어 버렸다. 굳이 이들 건축물뿐만 아니라 옛 주정공장과 사택을 비롯하

도시재생과 건축자산의 진흥

여 근현대시기의 건축물들도 적지 않게 철거되었다. 이 시대에 새삼 건축에 주목하는 것은 압축성장과정 이후 급속하게 변화되어 버린 우리 삶의 환경과 도시, 건축 근대화의 물결 속에 추진되었던 이른바 근대도시계획은 자동차의 기능에 가치를 부여하였고 경제성장의 논리 아래 주택과 기반시설을 지속적으로 구축하여 왔기 때문이다. 자연환경에 대한 존중과 배려, 그리고 인간중심의 생활공간 구축과 실현, 역사적 문화적 가치 창출을 위한 기반시설 및 공공건축의 정비가 적절하고도 충분히 반영되는 도시와 건축이 되지 못하였던 것이다. 건축은 생활환경을 구축하는데 있어서 중요한 의미를 갖는 건축물이자 오랜 시간에 걸쳐 축적해온 결과물이다. 이런 점 때문에 건축은 비바람을 피하는 단순한 물리적 건축물의 기능을 벗

어나 국가와 지역의 시대성과 역사성, 그리고 문화성을 반영하는 상징적인 건축물이자 자산으로서의 기능이 강해져서 건축문화라고 부른다. 건축문화는 눈에 보이는 실제 없이는 지속될 수 없다. 살아있는 실물의 모습과 촉감, 그리고 공간적인 분위기로 느끼고 생각하게 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도시건축의 질과 삶의 질 측면, 그리고 지역의 특성을 반영하기 위해 제정된 법이 '한옥 등 건축자산의 진흥에 관한 법률'이다. 굳이 사족(蛇足)을 붙이자면 건축자산의 보전과 조성, 활용을 통해 주민 및 공동체가 주도적으로 삶의 공간을 유지하는 '일상성', 지역의 역사와 문화의 가치 존중위에 합리적인 보전과 개발을 통해 주민의 삶의 질 향상과 지역고유의 환경이 연계되는 '지역성'을 추구하고자 하는 것이 건축자산 진흥의 기본적인 가치이다. 그리고 실천적

이고 구체적인 접근방법에 있어서도 건축물을 건축자산으로서 인식하고 보존하면서 공공성을 확보하기 위한 다양한 개발수법을 적극 수용하여야 한다는 사회인식 변화와 아울러 관련 법규 및 제도의 개선이 점진적으로 이루어져야 하는 것이다. 특히 5년을 단위로 추진되는 건축자산 진흥시행계획은 도시재생 관련부서와 마을만들기 관련부서, 문화예술관련 부서등과도 깊이 연관되기 때문에 행정부서간의 협력, 연계사업추진이 필수적이다. 행정조직의 든든한 협력 관계속에 지역주민이 자발적이고 주도적으로 건축자산 진흥사업에 참여한다면 성공확률이 높을 것이다. 따라서 이제 막 뿌리를 내리고 있는 도시재생사업과 건축자산 진흥사업은 도시건축을 기반으로 하는 사업이어서 협력을 통한 '일상성'과 '지역성' 구축의 파급효과가 더욱 기대되고 주목할 필요가 있는 것이다.

사설

해양플라스틱 줄이기에 발벗고 나서야

인간이 버린 플라스틱 쓰레기의 심각성을 일깨워주는 사례들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최근 이탈리아 해안에서 플라스틱 쓰레기를 배 속에 가득 담고 승진 항유고래가 발견된 겁니다. 전문가들은 항유고래가 엄청난 양의 플라스틱 쓰레기 때문에 먹이를 소화하지 못해 승진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먼나라의 일만이 아닙니다. 지난 3월 환경부 국립생태원이 제주 앞바다에서 죽은 채로 발견된 바다거북을 부검했는데 몸속은 다량의 쓰레기로 차있었습니다. 비닐 같은 플라스틱 쓰레기가 결국 바다거북을 죽임으로 내몰았던 것입니다. 해양쓰레기가 국제적인 문제로 대두된 가운데 제주도가 해양플라스틱 저감 종합대책을 마련해 추진기로 했습니다. 제주도는 2018년 대비 2022년까지 30%, 2030년까지 50% 저감하는 정부의 해양플라스틱 감축목표에 따라 이같은 플라스틱 저감 종합대책을 시행합니다. 해양플라스틱은 해양생물의 생명을 위협할 뿐만 아니라 우리 식탁까지 위협할 우려가 매우 높기 때문입니다. 제주도는 우선 도내 해양쓰레기 정화주간 세부 운영계획을 만들어 전도적으로 해양쓰레기를 수거하기로 했습니다. 또 대 육상에서 하천을 통해 유입되는 플라스틱 쓰레기를 차단하기

위해 행정시별로 수거 계획을 수립해 시행할 방침입니다. 특히 해양플라스틱 쓰레기의 약 53%를 차지하는 페이퍼·폐부표의 회수에 주력하기로 했습니다. 플라스틱은 동물만 먹는 것이 아닙니다. 인간도 일상생활에서 플라스틱을 적잖게 섭취한다는 연구 결과가 나온 겁니다. 옛것제 세계자연기금(WWF)이 발표한 '플라스틱의 인체 섭취 평가 연구' 보고서에 따르면 한 사람이 일주일간 섭취하는 미세플라스틱은 약 2000개에 달합니다. 이를 무게로 환산하면 찻숟 한 개 무게인 21g이며 연간으로 따지면 250g이 넘는 양입니다. 때문에 인간이 배출한 플라스틱은 동물은 물론 인간에게 부메랑이 되어 얼마든지 다시 되돌아올 수 있다는 얘깁니다. 가뜰이나 해양플라스틱은 바다 생태계를 위협하는 수준을 넘어섰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이대로 간다면 오는 2050년에는 바다에 물고기보다 플라스틱이 많아질 수도 있다는 끔찍한 전망까지 나올 정도로 심각합니다. 문제는 1회용 플라스틱을 무분별하게 사용하면 그것을 마구 버리는 큰 일입니다. 제주도가 추진하는 해양플라스틱 저감대책이 실질적인 효과를 거두려면 합니다.

열린마당

경로당, 모든 노인들을 위한 공간?



김 동 히
제주연구원 고령사회연구센터

경로당은 65세 이상 노인들이 모여 식사하고 담소를 나누는 대표적인 노인여가공간이다. 하지만 60, 70대 어르신들께 경로당에 대해서 여쭙보면, "아직 젊어서, 나중에나 가야지", "어른들이 심부름만 시켜서 안 가"라는 말을 쉽게 들을 수 있다. 실제로 경로당을 이용하시는 분은 75세 이상인 경우가 많다. 젊은 노인들은 일을 하러 나가거나, 지역 내 노인복지관을 이용하기 때문이다. 반면 고령 노인들은 복지관까지 가시기 힘들고, 활동적인 프로그램을 찾아가기 힘들기 때문에 경로당을 주로 이용하신다. 경로당에서 진행되는 맨스스포츠도 고령 노인들은 따라 하기 어려워 하신다고 한다. 따라서 70대

를 위한 프로그램은 노인복지관에서 맡고, 경로당에서는 80대 이상 고령자를 위한 정적인 프로그램을 진행하는 것이 효과적이라고 생각된다. 한편, 일부 경로당은 멀리 있어서 노인들이 다니기에 불편하다. 성산읍 고성리는 마을에 경로당이 하나 밖에 없어서, 2km 거리에 오셔야 되는 분들도 있다. 몸이 불편한 고령노인의 경우, 사실상 이용하기 힘들다. 과거 근거리 경로당을 만들려고 했지만, 마을이 나뉘는다는 일부 어르신들의 반대로 철회됐다고 한다. 도 차원에서 경로당 설립에 대한 개입이 필요한 이유다. 2018년 10월 기준 제주도 내 경로당 숫자는 434개소이다. 또한 각 경로당 마다 매년 1000만원 이상의 도비가 지원된다. 대략 잡아도 40억원 이상이다. 경로당은 노인들에게 가장 근접한 공간이라는 점에서 중요한 자원이다. 분명한 목적을 가지고 효율적으로 운영되면 노인 의료비용 경감, 고독사 방지 등의 부수적 효과를 얻을 수 있기에 더 큰 관심이 필요하다.

\* '오피니언' 면의 외부필자 기고는 본지의 편집방향과 일치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뉴스-in

U-20 월드컵 거리응원전 선물이벤트

도, 사인볼·막대풍선 등 제공

○...제주특별자치도가 FIFA U-20 월드컵에서 사상 처음으로 결승전에 진출한 한국대표팀을 응원하기 위한 거리응원전에서 선물이벤트를 진행.

제주도는 15일 밤 9시부터 16일 새벽까지 제주종합경기장과 밤 12시부터 월드컵경기장에서 대형전광판과 스크린을 설치해 거리응원전에 동참.

특히 제주도는 이날 월드컵 응원사진을 SNS에 올린 도민들에게 제주유나이티드 선수사인볼 100개와 응원막대풍선을 제공하고, 치어리더 공연 등 다양한 볼거리와 즐길거리를 선사.

고교대상 금연교실 운영 관심

○...서귀포보건소가 지역내 고등학교 2개교를 대상으로 청소년 금연교실을 운영해 관심.

지난 12일부터 5주간 실시되는 이번 교육은 학생들의 금연 동기강화를 위해 자기소개를 통한 친밀

감 형성, 정래희광 공유 등 미래인생 설계, 흡연중독 욕구 인지 및 중독 관리 기법 습득, 흡연에 대한 지식 바로 알기 교육 등이 진행.

서귀포보건소 관계자는 "청소년들이 담배에 접근하는 것을 사전에 차단하고 청소년 흡연율을 낮추기 위해 흡연예방교육 및 캠페인 등을 이어갈 계획"이라고 강조.

관람 만족도 6년 중 최고

○...제주도민속자연사박물관이 지난 5월 17일부터 6월 2일까지 관람객 238명을 대상으로 만족도 조사 결과 최근 6년 간 수치 중에서 가장 높은 점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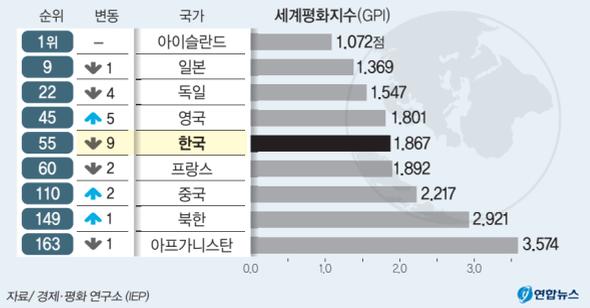
박물관에 따르면 이번에 응답자의 87% 이상이 "관람에 만족한다"고 했고 "직원·해설사 친절도"는 91.2%가 만족한다고 응답.

박물관 측은 "불만족 사유로 휴식 공간 부족 등이 제기됐고 체험활동 등을 늘려달라는 의견이 있는 만큼 이를 반영해 박물관 관람 서비스의 질을 한 단계 높여겠다"고 설명.

그래픽 뉴스

주요국 '평화로운 나라' 순위

세계 163개국 대상, '전쟁 중인 대내외 분쟁', '사회 안전 및 안보', '군사화' 등 평화와 관련된 3개 부문에서 23개 지표를 계량화해 나라별 점수 산정. 총점이 1에 가까울수록 '평화로운 상태'



부고
서병철(제주해비치호텔) 아버지 서동호(프란체스코·前 JIBS 이사·향년 71세)께서 서기 2019년 6월 14일 21시경 별세하셨기에 삼가 알려드립니다.
일 포: 2019년 6월 17일(월)
발인일시: 2019년 6월 18일(화)
발인장소: 연동성당
장례미사: 오전 10시
장 자: 양지공원→하늘아름골 가족묘지

부고
강창의(前 진주강씨 제주도총회장·前 제주애월읍민회 초대회장) 어머니 제주양씨 평오(향년 95세)께서 서기 2019년 6월 15일 04시경에 별세하셨기에 삼가 알려드립니다.
일 포: 2019년 6월 17일(월)
발인일시: 2019년 6월 18일(화) 오전 8시
발인장소: 하귀능장례식장 201분향실
장 자: 애월읍 고성리 선영

감사의 말씀
이번 저희 아버지 광산김공 대표(향년 90세) 상사에 바쁘신 중에도 정중하게 조의를 베풀어 주신데 대하여 마음속 깊이 감사를 드립니다.
일일이 찾아뵈었고 고마운 말씀을 올림이 도리어오나 우선 지면을 빌려 인사를 올립니다.
부인 오신원
아들 김윤정 며느리 오순옥
윤현 정미희
윤덕 홍경숙
윤관 문영애
딸 김민희 고미경

감사의 말씀
이번 저희 아버지 광산김공 인성(향년 75세) 상사에 바쁘신 중에도 정중하게 조의를 베풀어 주신데 대하여 마음속 깊이 감사를 드립니다.
일일이 찾아뵈었고 고마운 말씀을 올림이 도리어오나 우선 지면을 빌려 인사를 올립니다.
부인 강대순
아들 김용창 며느리 김정선
용화 오선애
딸 김지영 사위 오병일

감사의 말씀
이번 저희 아버지 조여상 상사에 바쁘신 중에도 정중하게 조의를 베풀어 주신데 대하여 마음속 깊이 감사를 드립니다.
일일이 찾아뵈었고 고마운 말씀을 올림이 도리어오나 우선 지면을 빌려 인사를 올립니다.
부인 고정아
딸 조해리 해진

감사의 말씀
이번 저희 어머니 경주김씨 봉순(향년 93세) 상사에 바쁘신 중에도 정중하게 조의를 베풀어 주신데 대하여 마음속 깊이 감사를 드립니다.
일일이 찾아뵈었고 고마운 말씀을 올림이 도리어오나 우선 지면을 빌려 인사를 올립니다.
아들 이동완 며느리 고연심
딸 이춘자 사위 고성훈
춘선 정정생
춘희 윤영우
숙희

재산상속 한정승인 공고
성 명: 망 황화자(1945. 06. 26. 생)
취우주소: 제주도 한림읍 명랑로3길 21(한림리)
상기자는 2019년 2월 25일 사망하였고, 그의 상속인들은 2019년 6월 5일 제주지방법원 2019-단22호로 상속한정승인 신청을 수리 받았습니니다.
이에 민법 제1023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채권자와 수증자께서는 신고기간 내에 신고하시기 바라며, 아래 신고기간내에 신고하지 않은 분은 상속재산 청산에서 제외됨을 알려드립니다.
- 다 음 -
1. 신고기간: 본 공고일로부터 2개월간
2. 신고처: 천안시 서북구 대덕로2길 13(쌍용동)
2019년 6월 17일
공고인(상속한정승인자)
김금숙, 김홍두, 김윤경

관심과 사랑 주심이 이룬 성과 집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약백도라지 분말 100% 목성콜
미국식품의약회 SCI A급 등록
대한병원 임상결과 및 53선취 식품안전성 입증
농협 하나로마트
경제통상 진흥원
판매장 등
전화 064-783-8887, 010-5755-8887, 성담 010-2691-9316
홈페이지: http://www.baekdoraji.com
주산지 선을2리 용암동굴계 거문오름 일대지역
한기림 JK백도라지연구소

탁월한 선택! 확실한 광고 효과
한라일보 광고문의
750-2828
서귀포지사
732-5552